



태권도진흥재단, 안철수 국회의원 특강 가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22일,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초청해 '국기 태권도 진흥 및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 임직원,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 공무원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직원들도 참석하는 등 150여 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특강에서 안철수 의원은 '국기 태권도 진흥 및 활성화'에 대해 "남녀노소 일상에서 태권도를 수련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 국기 태권도의 중요한 가치이며 마라톤과 달리 거침 없이 생활 체육으로서 태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 태권도 사범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태권도는 글로벌 무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의 초석을 다져왔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과학기술 등 타 분야와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비전대 토목과, 드론교육 재능기부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는 22~23일 양일간 도내 시·군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교육 재능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발전 서비스러닝의 모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계 현장 기반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형식으로 추진했다. 이날 지적토목학과 이근상 교수는 드론 교육을 총괄하며 교육생들에게 드론의 기본 이해 및 동작 원리 설명, 드론 조종 사진 및 영상촬영, 드론 촬영영상 통한 동영상 제작 실습 등을 직접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 성수면, 오류마을 어머니들 장학금 기탁

임실군 성수면 오류마을 어머니들이 22일 임실군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재)임실군 애향학회 이사장인 심 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성수면 오류마을 어머니들(회장 최양순)회는 2019년 16명을 시작으로 장학금 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활동 목적을 갖고 구성됐으며, 현재 5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양순 회장은 "집안이 어려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계속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2023 공공부문 사례관리 관련 간담회

남원시는 22일, 공공부문 사례관리수행 담당 팀장(10여명)들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례관리 사업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8개 분야 △통합사례관리 △노년맞춤돌봄 △아동보호의 공공부문 사례관리 담당 팀장들은 개별사업들을 소개하고 공공부문 사례관리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김기우 기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할 수 있어 보람”

전주시, 발달장애인 앙상블연주단 찾아가는 음악회 가져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아름다운 하모니가 김제 용지중 학교에 이어 전주 효자생활문화센터에서 울려퍼진다.

전주시는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및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수행기관 2곳을 선정해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 공연은 수행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대표 고영미)과 사단법인 예술기획 My Stage(대표 전대원)가 선정돼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연주 활동을 돕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 소속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은 지난 22일 김제 용지중학교를 찾아 발달장애인과 호흡을 맞춰 온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고, 연주회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학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물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 정기 연주회 시 후원받은 다양한 인형을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관객 맞춤형 이벤트도 기획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올해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예술기획 My Stage 소속 장애인 앙상블연주단도 오는 22일에 효자생활문화센터 내 주민모니터실에서 첫 공연을 진행한다. 고영미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 대표는 "지난 정기



연주회 때 후원받은 인형을 학생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기쁘고,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공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올해도 환경을 살리는 기부활동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시민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앙상블연주단 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우수성을 알리고,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 확대 일환으로 여러가지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공공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태권도 단체서 감사패 받아

황인홍 무주군수가 22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명사 특강에서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과 국기원(원장 이동섭),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4개 태권도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감사패는 국기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지속발전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이자 세계인의 무예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한 황인홍 무주군수의 노력을 인정해 전달했다.

황 군수는 "무주는 세계 태권도 성지라는 자부심 국기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키워야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 태권도 사범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태권도 대표 단체에서 공동으로 주신 감사패는 무주가 앞으로 더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태권도 위상 강화와 태권시티 무주 실현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태권도원을 품은 성지로서 지역의 기능을 강화



하고 태권도인들이 즐겨 찾으며 더불어 수련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치중할 방침으로, 해외 태권도 사범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태권마을 조성(설립된 23년 완공)과 태권도 관련 글로벌 랜드마크를 지원하는 태권노비랜드 조성(무주읍 23년 완공)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전북자봉센터, 협약 체결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2일 (사)전라북도지리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화·관광과 자원봉사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단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전라북도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와 문화예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많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향 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ESG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아태마스터스대회서 두각 나타내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체육학과 교수·동문들이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김순정 교수(태권도체육학과)가 여자 품새 개인 B급에서, 교직원 조훈희 씨는 남자 품새 개인 B-35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전주비전대가 획득한 금메달만 5개에 이른다.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고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전북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2~20일까지 진행, 1만 여명 이상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고봉수 학과장은 "전주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 동문들이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대회에서 일궈낸 성과에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고 수상자에게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김제지부 임인 지부장, 마약근절 캠페인 동참

농협 김제시지부 임인 지부장은 지난 22일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의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릴레이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인 지부장은 "미래 세대에겐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마약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인 지부장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이종화 지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날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한국전력공사 정관영 김제지사장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천왕우 원장을 지명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일동, 창립 50주년 기념 기부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동이 행정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2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학과 발전을 위해 행정학과 지정기탁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수 일동은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학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당면한 대학과 지역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진은 지방 및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의 역할 수행 및 행정학 분야 학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정읍우체국, 정읍시의회 초청 간담회 개최

정읍우체국(국장 정영한)과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가)가 지난 22일 정읍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의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우체국이 연지동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정읍시민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다 나은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7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읍시와 정읍우체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체국 소량물 지원사업(할인쿠폰, 택배비 등) △우체국 플랫폼을 활용한 고형차량기부제 홍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보통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우체국 민원의 행복 보험 무료 가입 등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농가들의 농산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영한 국장은 "정읍우체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량물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판로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황해숙 정읍시의회 부의장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정읍우체국장 및 관계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은=김대환기자

우석대, '기획행정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가 '제7기 전북 지역 일자리 기획행정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주 우석빌딩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교육생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 과정은 우석대학교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전라북도·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했다.

오는 7월 6일까지 총 1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양성 과정은 직무기초와 취업대비 심화 실무 등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후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전북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에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김대환기자